

□ 코로나19 피해 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

○ 주요 추진실적

- (정책자금)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경편성, 기금변경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지속적 확대

* 부산지역 정책자금 규모 : 당초 2,741억원→3,253억원(전국 대비 6.1% 차지)

*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('20.7.8. 기준) : 30,760백만원

(단위 : 개사, 백만원)

사업명	연예산(A)	집행 누계		
		업체수	금액(B)	집행율(B/A)
코로나 피해기업	21,900	182	24,560	112.1%
코로나 피해 중소 병의원	6,200	35	6,200	100.0%
합 계	28,100	217	30,760	109.4%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된 경영애로기업 대상으로 대출잔액 상환유예(3-6개월), 만기연장(1년)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

* 코로나19 피해기업 상환유예, 만기연장 실적('20.7.8. 기준) : 385건

(단위 : 건수, 백만원)

구분	건수	금액(백만원)
상 환 유 예	231	3,054
만 기 연 장	154	20,720
합 계	385	23,774

* 상환유예 금액은 유예기간(3-6개월) 납입예정 금액, 만기연장 금액은 전체 대출잔액

○ 향후 대응방향

-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기술, 혁신성장* 품목 등 유망 신산업 영위 업종 중소기업 시설투자 시 집중지원

* 헬스케어, 바이오, 첨단제조·자동화, 에너지, 건강·진단, 지식서비스 등

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존 수출지원사업 內 신규 프로그램 추진

○ 주요현안

- (수출바우처) '20년 3차 수출바우처 사업 현장평가 진행
 - * 부산지역 현장평가 대상업체 : 202社
- (지역중기마케팅)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제한, 주요전시회 취소 등으로 인해 무역사절단, 수출상담회 등의 대체 수출지원 추진 필요성 제기

○ 향후 대응방향

- 수출바우처사업 현장평가 시, 언택트 방식 평가도입(희망기업 대상) 및 감염증 예방·진단 분야 업종 영위기업에 대해 평가 가점 부여
-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별 특화 신규사업 개발 및 온라인 기반 수출마케팅 사업 추진 협의 등
 - * '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'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이를 대체할 온라인 기반의 사업 추진 검토중